



세무·회계·경영(TAM)쟁점뉴스 요약

"세금신고 어려워 마세요"... 국세청, 홈택스 내비게이션 제공

국세청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.

이번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시범운영으로 제공 대상은 약 1100만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약 860만명, 인적용역자 등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약 240만명이다.

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금 길잡이 서비스다.

납세자는 홈택스에서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신고부터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간단히 마칠 수 있다.

신고 진행상황, 과거 신고내용, 신고 도움서비스(개별분 석자료), 신고부속서류 제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.

이용기간은 오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이며,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제한적으로 6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.

종합소득세 외 다른 세금 신고도 신고기한에 맞춰 제공할 예정이다.

1분기 국세수입 19조원↑... 소득세 법인세 동반 증가

지난해 1분기 코로나 국면에서 기업실적이 개선하고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.

또한,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지출을 추가로 늘렸지만, 세금이 더 걷히면서 결과적으로는 위기상황에도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방점을 찍었다.

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'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'에 따르면, 올해 1~3월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1~3월보다 19조원 증가했다.

이는 올해 목표 세금 수입의 31.3%를 거둬들인 것으로 2020년 1분기보다 6.9%포인트 더 빠르게 세금 공간이 채워진 것이다.

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을 바탕으로 납부한다. 따라서 올해 국세수입 실적은 지난해 경제상황의 청사진으로 풀이할 수 있다.

안도길 기재부 2차관은 "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행해온 적극적 재정운용에 힘입은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 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"라고 전했다.

업력 7년내 창업기업 187만5천개... 총 매출액 750조원

2018년 말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은 187만5천개로 전년 말보다 7.3%(12만7천 개)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내놓고 이 중 정보통신·교육·예술·스포츠 등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을 포함하는 기술기반 업종이 25.3%(47만5천 개), 비기술기반 업종이 74.7%(140만 개)를 차지했다고 밝혔다.

대표자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2.1%로 가장 많았고, 뒤이어 50대(27.8%), 30대(22.0%), 60대 이상(12.3%), 20대 이하(5.8%) 등의 순이다. 이중 20대 이하 대표자는 전년 대비 16.6%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.

창업기업의 고용인원은 304만1천 명으로 1년 사이에 5.0% 늘었다. 창업기업이 2018년 창출한 매출은 749조3천억원으로 6.2% 증가했다. 이 중 기술기반 업종 매출이 33.5%, 비기술기반 업종이 66.5%를 차지했다.

중기부는 "창업기업 8천 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창업 자금은 평균 3억1천만원으로 나타났고, 평균 자산은 5억1천만원, 영업이익률은 7.6%(평균 3천900만원)였다"고 밝혔다.